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科學技術文獻의 蔽集과 提供—

### 머리말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은(以下 圖書館으로 略한다) 國會議事堂의 北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約 2年前에 增築工事を 完了하였다. 圖書館建物은 所謂 中央書庫式의 建物로서 한쪽면의 길이가 90미터인 네 둘레는 事室用으로 되어 있으며 中央은 書庫로 되어 있다.

이 中央書庫는 窓이 없으며 白色의 立方體는 6層의 事務室보다 훨씬 더 큼이다. 이 建物은 15년 앞을 내다 본 設計에 의해 建築되었다고 한다.

國會圖書館은 圖書 및 其他의 圖書館資料를 蔽集하여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同時に 行政 및 司法의 各部門과 그리고 日本 國民에 대하여 圖書館奉仕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1947年 4月에 設立되었다. 國會圖書館長은 日本國內에서 刊行된 出版物의 目錄, 索引 그리고 日本法律의 索引等을 每年 作成할 義務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出版物의 納入制度와 더불어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情報活動에 대하여 이 바지하고 있다.

科學技術에 關한 資料는 一般的인 日書 및 洋書의 單行本이 約 20萬冊, 世界의 約 50個國의 外國雜誌 10,000種을 目標로 하여 蔽集하고 있으며 國內發行의 定期刊行物은 約 2,500種을 蔽集하고 있다. 그러면 각種 資料의 內容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科學技術情報의 蔽集

國會圖書館은 國立國會圖書館法에 의해 設立된 日本의 唯一한 國立圖書館이다. 場所가 國會議事堂에 隣接해 있기 때문에 國會議員外에는 利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實은 國立國會圖書館法에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國會, 政府機關 및 모든 國民에게 奉仕하게 되어 있으며 滿 20歲以上的 成人이면 누구나 利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國立國會圖書館의 特徵의 하나는 納本制度이다. 이 納本制度는 國立國會圖書館法에 의해 日本 國內에서 刊行되는 圖書 및 雜誌等은 모두 그 一部를 圖書館에 納本키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納本制度에 依해 學術雜誌 및 圖書를 包含한

刊行物은 거의 圖書館에 蔽集되고 있다.

國會圖書館은 1952年頃 부터 日本에 必要한 科學技術 및 產業部門의 海外科學技術文獻을 蔽集하기 始作하였다. 現在 外國科學技術雜誌 10,000種, 技術 레포트類 80萬件에 達하는 日本 最大의 科學技術情報源으로 成長하였다. 主要한 資料의 內容을 種類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表一参照)

表一 外國科學技術關係資料所藏數

區 分	數 量
外 國 圖 書	29,810種
外 國 雜 誌	8,367種
레 포 오 트 類	未 詳
美國政府研究 레포트 (PB·AD 레포트)	254,597件
美國 原子力關係 레포트	92,831件
其 他	21,568件
航空 · 宇宙關係 레포트	18,813件
研究機關 · 學協會出版物	10,829件
外 國 學 位 論 文	30,594件
技 術 文 獻 英 譯 資 料	9,171件

### 1. 雜 誌

#### (a) 國內雜誌

國內에서 刊行된 雜誌는 거의 모두 納本되고 있으며 市販誌, 學協會誌, 官廳刊行物, 新聞等 8,000種以上이 現在 繼續 納本되고 있다. 1966年度에 納本된 逐次刊行物의 數는 表二와 같다.

日本科學技術關係逐次刊行物目錄(Directory of Japanese Scientific Periodicals, 1967)에 收錄된 科學技術關係逐次刊行物은 少數의例外를 除外하고는 모두 國會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으며, 그 部門別, 刊行機關別種類數는 表三과 같다.

表二 納本雜誌數(1966年)

官 公署 出 版 物	2,073種
一 般 雜 誌	5,786種
新 聞 · 通 信	1,066種
合 計	8,178種

表-3

日本의 科學技術關係 雜誌數  
(Directory of Japanese Scientific Periodicals, 1967에 依함)

刊行機關	部 門	自然科學關係	工 學 關 係	醫 學 關 係	農 學 關 係	計
大 學	學	211(23.6%)	163(7.6%)	114(13.1%)	86(8.1%)	574(11.6%)
大學附屬研究所		52(5.8)	46(2.2)	32(3.7)	22(2.1)	152(3.1)
官 公 署		74(8.3)	246(11.5)	70(8.0)	277(26.9)	667(13.5)
國 公 立 研 究 機 關		240(26.8)	143(6.7)	77(8.8)	304(29.8)	764(15.4)
公 共 企 業 體		7(0.8)	72(3.4)	3(0.3)	46(4.5)	128(2.6)
其 他 研 究 所		21(2.4)	59(2.7)	30(3.4)	11(1.1)	121(2.5)
學 協 會		168(13.8)	426(19.9)	254(29.0)	88(9.1)	936(19.0)
研 究 團 體		89(10.0)	312(14.6)	117(13.4)	107(10.4)	625(12.7)
民 間 企 業		2(0.2)	235(11.0)	34(3.9)	12(1.2)	283(5.8)
民 間 研 究 所		1(0.1)	35(1.5)	9(1.0)	2(0.2)	47(1.0)
報 通 · 出 版		29(3.2)	401(18.8)	134(15.4)	68(6.6)	632(12.8)
計		894(18.2%)	2,138(43.6%)	874(17.4%)	1,023(20.7%)	4,929

## (b) 外國雜誌

科學技術情報서비스를 함께 있어서 가장重要的情報源은 外國雜誌이므로 國會圖書館에서는 科學技術資料整備의重點을 첫째로 外國雜誌 1萬種을 蒐集하는데 두고 있다. 이目標는 現在 거의達成되어가고 있으며 그範圍는 臨床醫學을 除外한 自然科學과 技術의 全部門을 網羅하고 있다. 表-4는 그分野別, 國別의 數와 百分比이다. 그리고 文獻調査에 必要한抄錄, 索引誌는 빠짐없이 蒐集에 努力하고 있다. 또한 缺號(Back Numbers)에 關해서는, Jou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Physical Review 같은 著名한 學術雜誌는 創刊號부터 蒯集하고 있으며, 其他 主要한 雜誌에 대해서도 各己 所要의 期間것을 整備하고 있다.

## 2. 테크니칼 레포트(表-1参照)

## (a) 原子力레포트

美國原子力委員會(AEC)의 研究開發레포트는 現在 年間 約 6,000件 前後 刊行되고 있다. 國會圖書館은 1955年부터 AEC의 寄託圖書館(Deposit Library)으로서 資料를 받고 있으며, 이 資料를 一般에게 利用하도록 提供하고 있다. 또한 英國, 佛蘭西, 카나다 等 原子力開發이 發展된 國家의 研究레포트도入手하고 있다.

## (b) PB·AD레포트

美國政府가 年間 約 30億弗을 投資하여 行하고 있는 研究開發의 成果가 國防省關係는 AD Report, 其他는 PB Report로서 公開되고 있다. 그內容은 自然科學 그리고 工學의 모든 分野에 이르는 最新의 것이며 國會圖書館에서는 이것을 全部入手하고 있으며, 그數는 年間 15,000件 程度된다.

## (c) 航空宇宙開發레포트

美國航空宇宙局(NASA)을 비롯하여 各國 政府 및 民間研究機關의 航空·宇宙關係 研究報告를入手하고 있다.

## (d) RAND CORPORATION REPORT

美國의 研究調查機關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랜드 코오포레이션(RAND Corporation)의 研究報告의入手. 國會圖書館은 그 寄託圖書館으로서 레포트를 받고 있고 있다. 더우기 RAND Report로서 單獨으로 刊行되는 것 외에 많은 研究報告가 雜誌의 論文이나 AD

表-4 外國科學技術關係所藏數

(國別·分類別)

國 別	百分比%	分 類 類	數	百分比%
America	26.6	自然科學一般	358	4.2
Germany	19.4	數 學	226	2.7
England	17.6	物 理 學	169	2.0
France	9.8	化 學	225	2.6
Italy	2.7	地 球 科 學	368	4.4
Swiss	2.6	生 物 學	654	7.8
Netherland	2.0	醫 學	951	11.3
Canada	1.8	工 業 一 般	1,007	12.6
Austria	1.5	機 械 工 學	689	8.2
Belgium	1.1	原 子 力 工 學	85	1.0
Argentina	1.1	電 氣 工 學	358	4.2
Czechoslovakia	1.1	鑽山·金屬工學	412	4.9
India	1.0	建 設 工 學	684	8.2
Others	6.6	化 學 工 業	1,125	13.3
		農 業	712	8.5
		其 他	344	4.1
		合 計	8,367	100

페포오토로서公開되어 있으며, 이러한 資料도 國會圖書館에서 利用이 可能하다.

### 3. 博士論文

雜誌나 테크니컬 페포오토와 같이 많이 利用되는 資料中 博士論文(Doctoral Dissertation)이 있다. 美國에 있는 約 140 大學의 學位論文을 University Microfilm 社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摄影한 것 中에서 理工學部門만을入手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의 博士論文도 文部省을 經由하여 國會圖書館에서入手하여 保管하고 있다.

### 4. 學協會資料 및 會議報告論文(Proceedings)

學協會에서는 그 機關誌에 收錄하는 것 以外에 各種의 研究論文이나 其他 資料를 刊行하고 있다. 大部分은 番號를 붙인 一冊 一論文의 템프리트로 되어 있다.

國會圖書館에서는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SAE(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s), SAE(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s) IEEE(Institu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s) 等을入手하고 있다. 그리고 會議關係資料로서는 國際的 或은 國內에서 開催되는 學會, Congress, Symposium의 數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이 會議에서 整理되어 刊行되는 資料는 學術情報의 主要한 미디어(媒介物)로 된다. 그 記錄(Proceedings)은 單行本으로 刊行되기도 하고 或은 雜誌에 收錄되며 또한 테크니컬 페포오토로서 發表된다. 그러므로 國會圖書館에서는 이 런 資料를 可及的 많이 蒐集하여 一般研究者들의 要求에 應하고 있다.

### 5. 圖 書

#### (a) 國內圖書

國內 刊行物의 納本制度에 依하여 學術的인 圖書나 一般圖書는 모두 國會圖書館에 蒐集된다. 1948年 以來 1967년까지 蒜集된 圖書의 數는 表-5와 같다.

#### (b) 外國圖書

國會圖書館의 調査서어 비스에 必要한 解(事)典, 便覽等을 비롯하여, 各 專門主題에 관한 基礎的인 것과

表-5 科學技術關係圖書

(分野別所藏數 1948—1967)

分 野	國內圖書	外國圖書
自然科學	6,389(12.6%)	8,822(29.6%)
工學·技術	16,985(33.3%)	7,369(24.7%)
化學·化學工業	6,211(12.2%)	5,020(16.8%)
生物科學	21,313(41.9%)	8,599(28.9%)
計	50,898 (100%)	29,810 (100%)

最新의 内容을 가지는 것을 重點的으로 選擇購入하고 있으며, 또한 古典的인 文獻에 대해서도 留意하고 있다.

### 6. 官廳刊行物

國內, 國外의 官廳刊行物이 充實하게 蒜集되어 있는 곳은 國會圖書館뿐이다. 國내는 納本에 依해서 그리고 國外는 國際交換에 依해入手하고 있다. 科學技術部門에도 官廳機關의 研究調查報告, 行政의 報告書, 科學技術行政에 關한 文獻, 統計 等 다른 곳에서는 賀得하기 어려운 資料도 많다. 外國의 資料는 美國의 資料가 가장 多으며 英國, 加拿大等의 資料도 美國에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國際機關(UN, UNESCO, OECD等)의 資料도 寄託圖書館制度에 依해入手되고 있다.

## II. 情報提供業務

이와 같이 龐大한 蒜集情報은 効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에서는 目錄類의 刊行, 閱覽, 複寫, 貸出 및 參考奉仕 等의 業務를 行하고 있다.

### 1. 刊 行 物

#### (a) 圖書에 관한 것

納本週報 週刊

〈國會圖書館에 納本된 圖書의 速報〉

全日本出版物總目錄 年刊

〈1年間에 刊行되며 國會圖書館에 納本된 圖書의 總覽〉

洋書速報 半月刊

〈整理를 끝낸 洋書의 速報〉

#### (b) 雜誌에 관한 것

雜誌記事索引 科學技術編 및 人文科學編 月刊

〈國內의 學術雜誌에 掲載된 論文의 分類索引, 每月 4~5,000件을 收錄. Directory of Japanese Scientific Periodicals, 1967〉 國內에서 現在 刊行되고 있는 科學技術關係雜誌 4,929種의 分類目錄(雜誌名, 發行者, 刊行年, 頁數, 價格, 用語, 抄錄의 有無等)을 詳記하였다.

#### (c) 테크니컬 페포오토에 관한 것

海外科學技術資料月報 月刊

國會圖書館이 蒜集한 PB·AD Report, 航空宇宙 Report, RAND Report 學位論文 等의 速報

原子力關係資料目錄 月刊

AEC Report 및 其他 原子力 資料의 受入速報

#### (d) 弘報誌

國立國會圖書館月報 年刊

國會圖書館 運營上의 問題點과 解說, PR記事, 外

國圖書館의 事情 等을 揭載

科學技術文獻サービス季刊

國會圖書館의 科學技術關係業務의 紹介, 資料解說,  
文獻調查의 案內, 海外事情等을 揭載.

## 2. 閱覽·複寫·貸出

滿20歲 以上的 國民은 누구든지 入館하여 所藏資料  
를 閱覽할 수 있다.

開館時間은 午前 9時 30分부터 午後 5時까지 이며,  
特別閱覽室은 午後 8時까지 利用할 수 있다. (事前承認  
이 必要하다).

科學技術資料室은 前述한 바와 같이 參考圖書類, 內  
外의 抄錄·索引誌가 具備되어 있으며 테크니컬 레포  
트의 閱覽도 할 수 있다.

複寫는 所藏資料를 제록스(Xerox), 마이크로필름  
(Microfilm) 摄影等에 依頼 有料로 提供하고 있다.

貸出은 政府機關, 研究調查機關 및 大學等의 圖書館  
에 대하여 貸出하고 있다. 그리고 貸出冊數, 期間 等  
은 資料에 따라 다르다.

## 3. 參考奉仕

参考奉仕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取扱하고 있다.

### Give and Take

대학 입학시험 때 학과시험의 끝나면 면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하나의 입시의  
절차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은 합  
격 불합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유쾌한  
일이 못되며, 수험생으로 하여금 공연히 긴장을 시키  
게 마련이다. 면접실에 들어온 수험생 중에 뻔뻔스러  
운 학생도 있어서 「선생님 이번에는 꼭 합격시켜주십  
시오. 또 떨어지면 저는 자살하고 말겠읍  
니다」하며 공갈조로 나오는 학생이 있는  
가하면 내 앞에 선 어떤 수험생은 상기된  
얼굴을 하면서 부들 부들 떨고 있는 순정파도 있다.  
이런 순정파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심시켜주는 것이  
교육자의 휴메니즘이기 때문에 부드려운 말로서 「시  
험 잘 보았는가, 영리하게 생겼으니 틀림 없이 불  
을 것이다」라고 위로하면 다소 안심이 되는지 표정  
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학교에 과가 40여개  
나 있는데 도서관학과를 지원한데 무슨 특별한 이

어떤 事項에 대하여

i, 어떤 文獻으로 調査하면 좋을가

ii) 利用코자 하는 文獻은 國會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지 萬一 없으면 어느 圖書館에서 가지고 있  
는지

iii) 그 問題를 專門的으로 取扱하고 있는 機關은  
어디인지를 回答해 준다. 그리고 口頭, 電話 및  
文書로 調査를 依頼할 수 있다. 그러나 特히 經  
費가 드는 일, 時間을 要하는 內容, 그리고 다른  
調査業務에 支障을 주는 文獻目錄作成 等은  
應하지 못할 때가 많다. 翻譯, 拔萃作成, 技術  
相談, 特許相談類에 屬하는 일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以上이 國會圖書館의 科學技術關係業務의 概略이다.

### 參考文獻

1.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9(11) 1968. 11  
pp. 49—53  
(金宗會 : KORSTIC)

유라도 있는가」 이런 질문은 과거 10여년동안 한결  
같이 물어보는 말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책을 많이 읽을것 같아서 왔어요」한다. 그러면 시  
험관인 나는 으레히 「도서관인은 자기가 책을 많이  
읽는것이 아니라 남이 책을 잘 읽도록 도와주는 사  
람이다」라고 「란가나단」의 도서관의 대법칙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수험생은 무안한 표  
정을 짓기도 하고 의아한 표정을 하기도 한다.

인간세상은 Give and take의 관계에서 이루어 지  
는데 성직자나 도서관인은 take는 하지 않고 Give  
and give를 인생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봉사도 좋고 성직자도 좋은데 우리  
가 한사람의 사회인으로 이 혐한 세상  
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보다는 좀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는 사서수당  
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그것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  
하여, 우리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모두가 힘쓰자. 수  
당을 받으면서 Give and give를 하자(K.S.I.)